



정책 동향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중기 1,482사 선정

중소기업청은 보국전기공업, 제일전기공업 등 총 1천 482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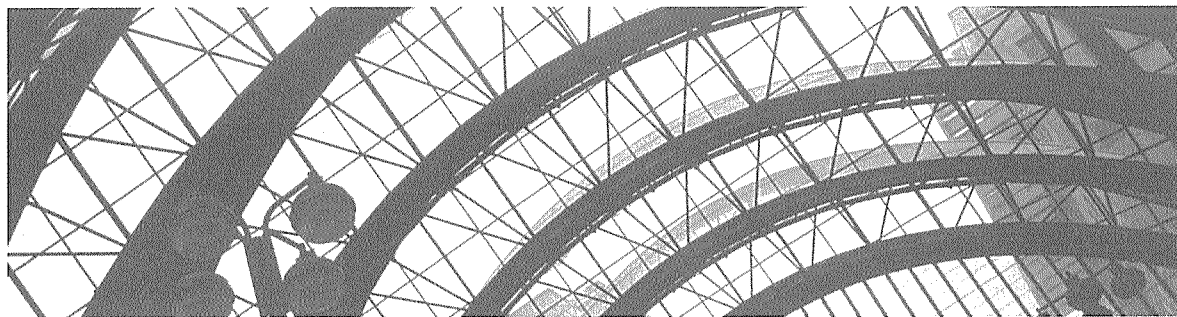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매년 정부의 예산규모에 따라 기술개발 과제당 70%의 개발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일정 기간 동안 기술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여건을 감안 기술 개발비용 중 75% 범위 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 지원받는 '기술혁신 개발사업 자금'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중기청은 이번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중 기술 지도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생기원장은 서류검토 등을 통해 현장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 기술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의 금융지원과 병행, 기술혁신개발사업, 해외유명규격획득사업 등 기술지원사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또 오는 2005년까지 5천개의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책 동향

중소기업청,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기동조사반 가동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와 기동조사반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중기청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관행이 여전히 도처에 상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본청 및 11개 지방청에 12개 기동조사반을 구성해 하도급 거래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기동조사반에 민원을 제기하면 불공정 거래를 즉시 해결해주고, 특히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막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례를 상시 수집/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단속만으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올 상반기 중 '공정거래제도 운영' 안내 책자 1만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앞으로 어음제도를 대신할 기업구매자금융제도(기업구매자대출, 외상매출권 담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0여회에 걸쳐 지역별로 설명회를 실시키로 했다.

중기 외국인력 도입 지원

중소기업청은 올해 외국 전문인력 도입 또는 국내 인력이 외국연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지원예산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늘렸으며 외국 인력 도입 시 왕복 항공료 전액과 6개월 체재비(매달 120만원)를 자사

인력 해외연수 때는 3개월 체재비(매달 96만원)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인원은 외국 인력 130명, 국내인력 35명 정도로 업체당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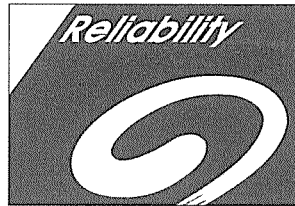
정책동향

산업자원부, 부품/소재 신뢰성 높인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소재 신뢰성향상기반 구축사업에 총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5~6개의 부품/소재 신뢰성평가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신뢰성 평가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뢰성평가센터는 국내기업이 개발한 부품/소재에 대해 국제적 인증기준에 맞는 신뢰성 평가를 수행해 주는 기관으로 지난해까지 기계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3개가 지정됐다. 산자부는 “부품/소재의 신뢰성은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제조업체의 판로 확보 및 수요기업이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



준이 된다.”며 “향후 10년 내에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선진국의 95%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지난해(42개 품목)보다 품목을 확대, 올해 70개 품목에 대한 신뢰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뢰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선진국의 9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기업 전자조달 66% 증가

올해 20개 공기업의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조달 규모가 3조3천645억원으로서 지난해 2조235억원보다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총 조달액중 전자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난해 17.2%에서 22.8%로 5.6%p 높이기로 했으며 비품과 소모품 등 단순물품에 대해서는 총 구매액 4천103억원중 59.8%를 전자조달로 구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자조달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공사·용역발주를 전자조달로 집행하여 입찰서류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유도키로

했다.

한국통신의 경우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입찰업무 처리기간을 7~10일 단축(현재 17~27일 → 10일이내)한데 이어 올해에는 계약 시에도 계약관련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9월부터 정부전자조달 단일창구가 구축되면 공사, 용역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전자조달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물품 구매 위주의 전자조달에서 공사·용역 등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동향

중기 정책자금 상반기 집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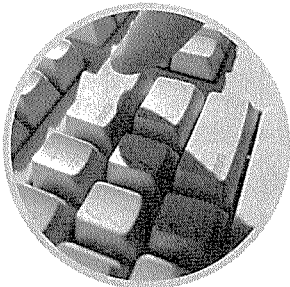
중소기업청은 올해 총 2조6236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66%인 1조7273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정책자금의 융자사업 2조2583억원중 1조4864억원(66%), 투자사업 2천억원중 1410억원(71%), 출연사업 1653억원중 1천억원(60%)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해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을 1천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기술사업화자금 500억원을 순수신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4개 자금 총 5900억원에 대해 순수신용과 대출을 통해 부동산 담보 없는 신용 위주 지원방식도 실시하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 중기 정책자금의 상반기 집중 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신규창업이 활성화되고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고용증대, 내수진작, 수출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omepage - <http://www.koema.or.kr>

